

수입 미국밀 농약검출

93.5.20

2월에 이어 1천5백톤에 말라치온 허용치 1.5배

지난 2월 허용기준치의 1백30배가 넘는 농약성분이 검출돼 물의를 빚은 바 있는 미국산 수입밀에서 또다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.

보사부는 19일 대성제분, 신극동제분, 영남제분 등 3개 회사가 지난 4월27일 국립부산물검역소에 수입신고한 미국산 밀(백맥) 1천5백t(1억8천5백여만원어치)에서 '말라치온' 농약성분이 허용기준치 2.0ppm을 1.5배 초과한 3.0ppm 검출돼 부적합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.

보사부는 또 이들 3개 회사와 신한제분 등 4개 제분회사가 같은 달 수입신고한 다른 3종류의 밀 2만3천여t에서도 '말라치온' 농약성분이 0.062~0.426ppm 검출되었으나 잔류허용기준에 미달돼 적합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.

허용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

된 밀의 양을 회사별로 보면 △신극동제분 7백t △대성제분 3백t △영남제분 5백t 등 모두 1천5백t으로 보사부는 이들 회사에 대해 이 밀을 폐기 또는 반송조치하도록 지시했다.

말라치온 농약은 유기인제 살충제로서 멸구, 진딧물 등의 구제에 널리 쓰이며 중독되면 구토, 근육경련, 호흡장애 등의 증세를 보인다.

한편 지난 2월에는 신한제분, 신극동제분, 대성제분, 영남제분 등 4개 회사가 수입한 미국산 밀 1만9백여t에서도 허용기준치의 1백30배가 넘는 농약변성물질인 MBC 성분이 검출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.